

한국레즈비언상담소와 함께 풀어보는
59가지 궁금증

자주 묻는 질문

FAQ

차 례

제작배경.....	3
알아두면 좋을 용어들.....	5
동성애 관련한 질문들.....	14
레즈비언의 건강한 성.....	47
동성애에 대한 편견들.....	64
트랜스젠더 관련 상담.....	86
단체 소개.....	100

FAQ

제작배경

상담소에는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상담전화는 물론이고 방송국 작가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요즘처럼 과제를 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대학생들까지, 저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동성애자 인권 현안에 대한 상담소의 공식 입장을 묻기도 하지요. 이렇게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되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던지는 질문들이 늘 비슷하기만 하다는 사실은 한편 좀 기운 빠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같은 답변을 반복해야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편견과 오해를 해소시켜나가는 것 자체가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중요한 역할임을 잘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질문만을 던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어디서든 동성애자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위 정규교육이라 불리는 12년 간의 초·중·고 교과 과정만을 떠올려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애를 기반으로 한 소위 정상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교육받았을지 몰라도, 동성애자 정체성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성적체성 중의 하나이며 동성애자도 역시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은 배워본 적이 없지요.

상담소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관한 왜곡된 이미지와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각종 상담소, 대학, 신문사 등에서 수많은 <동성애 바로 알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십대 여성 웹터 실무자,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강의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기도 하고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사업 또한 정기적으로 열었으며 상담소 공식 홈페이지(www.lsangdam.org)의 여

러 게시판을 활용하여 관련 글이나 자료를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소는 그 과정에서, 강의가 열리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계시거나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술적인 용어로 쓰여 있는 외국 서적이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 맞으면서도 누구든 이해하기 쉬운 책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것이 바로 「자주 묻는 질문 FAQ」입니다. 이 질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을 시작한 당사자들이 상담 속에서 빈번하게 꺼려 놓았던 고민이기도 하고, <동성애 바로 알기> 강의의 수강생들이 질의 응답 시간에 직접 던졌던 질문들이기도 하며, 바로 당신이 이제껏 궁금해 해 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 ① 알아두면 좋을 용어들
- ② 동성애 관련한 질문들
- ③ 레즈비언의 건강한 성
- ④ 동성애에 대한 편견들
- ⑤ 트랜스젠더 관련 상담

각각의 항목은 7~17개의 다양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과 설명을 통해 누구나 쉽게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레즈비언 상담소인만큼 FAQ의 내용으로써 레즈비언과 관련된 사례들을 주로 다루었으나, 트랜스젠더 상담 또한 상담소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가 상담을 통해 자주 접하는 트랜스젠더 관련 질문도 수록하였습니다. 총 59개 문항으로 집대성된 이 자료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에, 그리고 동성애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을 종식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7년 1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FAQ

I. 알아두면 좋을 용어들

1. 동성애/동성애자

동성애란 동성의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말합니다. 동성애자는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으로 이끌리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 중에,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하지요.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만이 파악하고 정체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당사자의 성정체성에 대해 진단하거나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성정체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강요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2. 레즈비언 lesbian

레즈비언은, 같은 여성에게 감정적, 정서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여성을 말합니다. 여성동성애자를 의미하지요.

이 레즈비언이라는 말은 그리스 에게해 레스보스Lesbos 섬에서 유래했습니다. 최고의 그리스 여성 시인으로 칭송받고 있는 고대 시인 사포Sappho는 동성애자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녀의 활동 근거지가 바로 이 레스보스 섬이었다고 해요. 레즈비언이라는 말은 이렇듯, 레스보스 섬의 사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어 여성동성애자를 칭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이 레즈비언이냐 아니냐는 본인만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 그러한 이끌림을 느낀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을 거친 여성들만이 자기 자신을 레즈비언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3. 게이 gay

게이는 여남 동성애자를 모두 아울러서 뜻하는 말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로 남성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권 서양의 이야기이기고, 한국에선 게이하면 남성동성애자, 레즈비언하면 여성동성애자를 나타내는 말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게이라는 말은 본디 영어 단어로써, '즐거운, 유쾌한, 기쁜, 행복한' 등의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서양에서 여성인권운동, 흑인민권운동과 더불어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게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했지요.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긍정하기 위한 낱말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4. 양성애/양성애자

양성애란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동성의 상대 혹은 이성의 상대에게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양성애자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 중에, 자신을 양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말하고요.

양성애자 정체성도 동성애자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스스로 깨닫고 규정을 짓는 것이지, 타인이 진단하고 규정하려 들어선 안됩니다.

5. 이반 二般, 異般

이반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보편적으로, 자연적으로, 당연하게’를 의미할 때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일반(一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포함하는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에 동성애를 포함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의 범주에서 동성애자들을 배척시키곤 하지요.

그래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는 일반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반(二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를 이(異)자를 사용해, ‘이반(異般)’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에선 동성애자나 게이, 레즈비언이라는 말보다 이반이라는 말이 더 흔히 쓰입니다. 이와 대칭적으로 이성애자를 ‘일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 이성애/이성애자/이성애주의

이성애란 이성의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애자란 이성의 상대에게 끌림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정체성을 이야기함에 있어,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등은 바로 그 자신만이 파악하고 정체화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대신 판단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동성의 상대에게 끌림

수 있는 확률과 이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확률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해요. 어느 확률이 더 높은가, 그 중 어떠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선택하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동성애자일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탐색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성인 상대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통해 그 사랑을 완성하며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만이 옳고 자연스럽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성애만이 존재하며 그것이 정상이고, 동성애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비정상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제도와 문화적 편견 등이 바로 이성애주의입니다.

이성애주의는 이성애만이 자연스럽게 옳은 것이라고 간주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탐색하고 알아갈 권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양성애자로 자신을 정체화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지요. 성적체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이성애주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동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나가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7. 호모포비아 homophobia

호모포비아는 동성애에 대한 공포증을 뜻합니다. 혐오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증상 중 하나가 근거 없이 막연하게 동성애에 대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동성애자에게 욕을 하거나 비방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보여 주는 증상이 바로 호모포비아적 증상입니다.

최근 호주 의학회에는 이 호모포비아를 정신질환 목록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것 자체가 이상한 정서라

는 것이지요. 1970년대 중반까지 동성애 자체가 미국 의학계에서 정신질환 목록에 올라있었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호주의 이런 움직임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세계 의학계가 동성애가 정신병이나 이상 성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보고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가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호모포비아를 양산해 내는 사회입니다. 이성간의 이 끌림, 사랑, 교제, 성관계, 결혼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깐요. 그 와중에 동성애자는 마치 돌연변이 내지는 괴물인 것처럼 취급되고요. 그러다보니 동성애자들 본인조차 자기 안의 호모포비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사회 환경으로부터 동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 깊은 호모포비아를 가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부터 기억하십시오. 동성의 상대에게 끌리든 이성의 상대에게 끌리든 그것은 잘못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만 계발되는 환경이다 보니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 부자연스럽거나 비정상인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건, 호모포비아입니다.

그럼 FAQ를 시작으로 해서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을 탐색해 나갑시다. 국내에는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대로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사탄의 유혹 따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끌림일 뿐이며 동성애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호모포비아를 부수어 나가는 여정은 길고 험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

리는 그 길에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을 의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8. 커밍아웃 coming out

'커밍아웃'이란 '벽장에서 나오다(coming out of closet)'라는 뜻을 가진 영어 구절의 줄임말입니다. 나의 존재를 가두고 있던 벽장에서 나와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긍정하는 것, 친구들이나 동료들, 가족 등과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 대사회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리는 행위 모두를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성애만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간주되는 이 사회에서는 어떤 이성애자도 자신이 이성애자임을 굳이 밝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는 동성애자들에겐 엄청난 억압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정하고 드러내지 못한 채 이성애자의 가면을 쓰고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데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려울 정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긍정하는 일, 나아가 타인에게 나의 성정체성을 알리고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 등은 동성애자들의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할수록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의 존재가 더 많이 알려지고 권리를 보장받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또한 커밍아웃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죄의식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데서 오는 자신감과, 타인에게 나를 온전히 드러냈다는 데서 오는 해방감과 별개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 불이익과 차별과 피해가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커밍아웃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커밍아웃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9. 아우팅 outing

동성애자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성적체성을 밝히는 커밍아웃과는 달리, '아우팅'이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자신의 성적체성이 폭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성애자도 누군가가 자신의 이성애자 정체성을 폭로할까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성애만이 '정상'으로 규정되는 사회니까요. 이성애주의 사회는 동성애자 정체성을 '악점' 혹은 '숨겨야 하는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해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집에서 쫓겨나는 등의 폭력을 겪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제 3자에 의해 밝혀졌을 경우, 그 개인은 큰 당혹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지요. 아우팅은 동성애자가 '커밍아웃'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낼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도 해요.

더 큰 문제는, 당사자가 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우팅'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아우팅'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혐오 범죄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이성애자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부끄러울 것도, 죄책감을 가질 것도 없는 일이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인생에 족쇄를 채우는 사회와, 그러한 사회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차별받고 잔혹한 대우를 받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동성애 혐오와 억압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 현 사회에서 '아우팅'은 동성애자의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으며, 실제로 여러 가지 범죄와 차별 사건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 서로 알게 된 사람들 간에 타인의 성적체성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들도 많지만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일인지, 외부에 알려져 당사자가 피해를 입게 되지는 않을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0.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반해서 가해지는 일방적인 성적 폭력입니다. 즉,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성폭력인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감 등을 줄 수 있는 언어적, 정신적 폭력까지도 포괄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성추행이나 강간뿐만 아니라, 불쾌한 성적 언동 및 동의를 구하지 않은 추근거림 역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계속적으로 접근하고 따라다니며 상대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스토킹도 성폭력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분히 이성애 중심, 남성성기 중심의 통념에 따라 성폭력 여부와 경중을 따지는 분위기가 만연해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결코 이성간에만 한정된 범죄가 아닙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 간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당연히 동성애자일 것이라고 여기거나 동성 간 성폭력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성애자가 동성인 상대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해자의 변명에 동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 간 성폭력의 경우는 그 개념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해도, 동성 간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폭력에 대해 반대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반성폭력네트워크(여성이반 커뮤니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임 <http://kirikiri.org/network>)

FAQ

II 동성애 관련 질문들

11. 동성애라는 게 뭐죠?

동성애란 동성의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적인, 심리적인, 성적인 이끌림 등을 말합니다. 이끌림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일종의 욕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좀더 깊이 알고 싶고, 보다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 손을 잡아보고 싶거나 입맞춤을 해 보고 싶은 등 스킨십의 욕구도 이에 포함되지요.

이러한 이끌림이나 욕구는 사람에 따라 그 성격이나 정도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매료되었을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자꾸만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상대방과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지요.

동성의 상대에게 느끼는 이러한 이끌림은, 어떤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느끼는 호감, 어떤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느끼는 호감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이성 간에 느끼는 호감과 이성 간의 교체만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해버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성애를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요. 때문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성애란 질병도 잘못도 아닌,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애써 원인을 규명할 필요도, 제거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는 이끌림입니다.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동성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려 본 경험을 하신 분들, 그리고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깨닫고 인정하게 된 분들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동성애자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사회에 대해 분노하세요.

또한 동성애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회의 편견에 길들여져 온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에 대해 인정하고, 동성애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해 차별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요.

12.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나요?

누구도 ‘어떤 사람이 이성애자가 되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동성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동성애자가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동성애자들은 매우 곤혹스러워진답니다. 그런 질문에 깔려 있는 생각이 의심스러우니까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시선이 깔려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성애만이 진리라고 믿어왔던 연구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

과학'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동성애의 원인을 규명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성호르몬이 많은 여성이 레즈비언이 된다'든지, '왼손잡이 중에 동성애자가 많다'든지 하는 설들에 대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그 어떠한 연구 결과도 동성애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애초에 원인을 찾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동성애자들 가운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성 친구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느 특정 시기에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이 계기가 되어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느냐, 이성애자가 되느냐에 있어서 특정한 이유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저마다 경험과 생각이 다르고, 동성애자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나 시점들도 다른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왜 그럴까?', '어떤 사연이 있길래 동성애자가 될걸까?' 라고 의아해하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동성애에 대해 정말 이해하고 싶다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왜 동성애자들만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13. 동성끼리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느 누가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명료하게 보편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건 모두에게 저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데 말이지요.

“사랑이란 ()이다.” 여러분이라면 이 괄호 안에 어떤 말을 채우겠어요? 여러 가지 익숙한 말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분도 계실 테고, 자기만

의 정의를 내려보려고 애쓰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한 건, 사랑의 형태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성애자들이 자신의 파트너와 나누고 있는 사랑의 형태가 천차만별이라면, 동성 커플들의 사랑도 마찬가지로요.

혹시라도 동성간의 사랑은 이성간의 사랑에 비해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교류가 없는 성관계 중심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부터 점검해 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물론 성생활 중심의 사랑도 가능하고 그것 자체를 열등한 사랑의 형태로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니까요. 이는 이성애자들 동성애자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다만 동성애를 “난잡한 섹스”, “문란한 관계” 라는 식을 폄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있기에 그 점을 우려하는 것일 뿐입니다.

동성애와 이성애가 다르다면, 그건 사랑하는 상대가 이성이 아닌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를 뿐이지요. 또한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문화가 다르니, 이성애 커플의 문화와 레즈비언 커플의 문화, 그리고 게이 커플의 문화가 각각 다른 면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화시켜서 무엇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할 순 없어요. 레즈비언 커플들도 다른 모든 커플들처럼 자신들만의 사랑을 가꾸어나가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 자체는 어느 사랑과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사랑이지만, 동성간의 사랑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성간의 사랑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령, 이성 간 사랑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관련이 깊지요. 그러나 동성 간 사랑은 법적 테두리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사랑의 방식이나 유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같은 점들은 다른 점이라고만 이야기할 순 없죠.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니까요. 사람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대우를 받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14. 현재 여자를 좋아하거나 과거에 좋아한 적이 있다면 레즈비언일까요?

사람들은 아직 누군가를 그리 특별히 좋아해 본 적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앞으로 이성의 상대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곤 하지요. 또한 이성의 상대와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나는 현재 이성의 상대를 좋아하고 있고, 과거에도 좋아한 적이 있으니까 이성애자인 것일까?’ 하고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이성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애만이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 너무 강하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레즈비언들도 역시 자신이 여성에게 갖게 되는 이끌림에 대해 ‘나는 레즈비언이구나’ 하고 규정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적 통념이 동성애를 ‘비정상’ 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비정상’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까봐 움츠러들게 되고요. 내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 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불이익과 차별에 대해 생각해봐도 불안하지요.

그렇기에 여성에게 이끌린다고 해서 어떤 여성이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깨닫거나 규정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요. 여성에게 끌리는 경험을 여러 번 했음에도, 혹은 여성과 교제했던 경험이 있는데도,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성과의 교제 경험이나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던 경험

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동성애자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 현재 여성을 좋아하고 있거나 과거에 여성을 좋아한 경험이 있는 여성 중, 그러한 경험을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자신의 통합적인 정체성 안으로 받아들이는 여성만이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여성이 레즈비언인가 하는 문제는 '너는 레즈비언이야. 여자를 좋아한 적이 있잖아'라고 다른 사람이 단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이고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자기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잘 찾을 수 있듯, '나는 레즈비언인가'에 대한 대답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잘 찾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15. 동성애는 선천적인 건가요, 후천적인 건가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를 궁금해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동성애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하는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동성애에 대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자신을 동성애자로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왜 동성애자가 되는 거지?”라고 묻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하나? 동성애자는 어떤 차별을 받고 있을까, 그 차별을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겠어요.

사실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를 밝혀내려는 연구는 계속 있어왔죠. 그러한 연구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편견이 깔려있었어요. 동성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성애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회에서 이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성애의 원인을 묻지 않고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도 하지 않잖아요.

동성애에 대해 편견을 가진 연구자들이 시도한 연구의 결과가 어떨까요? 엉터리 연구결과를 내놓고선 이를 통해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서, 그 원인이 컷속의 구조에 있다고 보기도 하고, 뇌의 이상에 있다고 보기도 했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뇌 전두엽 절제수술을 하기도 하고, 전기충격 요법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끔찍한 일이죠.

반면 동성애자 정체성을 후천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레즈비언이 된다는 설도 있었고, 여자들끼리 모여 있는 환경에 있으면 레즈비언이 된다는 설도 있었죠. 남성의 경우엔 같은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하건 혹은 누나가 많아서 게이가 된다는 설도 있었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가만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여성들은 이성으로부터 폭력을 겪거나 동성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레즈비언이 된다고 하면서, 남성들은 동성으로부터 폭력을 겪거나 이성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게이가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이성으로부터 성폭력을 겪거나 가정폭력을 겪은 여성들이 레즈비언이 되는 거라면 우리 사회에선 레즈비언이 과반수를 차지하겠군요. 이처럼 선천적 원인설이나 후천적 원인설이나 말이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은 동일하네요.

자, 그럼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가 된 이유에 대해,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건 사람

마다 각기 다르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동성애 정체성은 선천적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후천적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각자 판단한 원인은 적어도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진실에 가깝겠지요.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혐오하면서 동성애의 원인을 궁금해 하는 것과는 달리,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동성애자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유에 대해 탐색해보는 과정은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을 이성애자와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차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정체성을 선택할 때, 자신이 언제부터, 왜, 동성애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특정한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원인을 탐색해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이성애중심적인 환경 속에서 무시하고 살 수밖에 없었고 선택적으로 지워버렸던 기억을 정리할 수도 있지요. ‘아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을 단순히 우정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 돌아보니 사랑이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기억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지금껏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감정들과 경험들을 소중하고 존중할만한 것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동성애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각기 다른 원인을 떠올릴 수 있고, 그만큼 동성애자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하는 문제는 정해진 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지요.

자, 이제 동성애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나요? 중요한 것은 동성애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혹은 타인의 삶) 그 자체를 존중해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동성애에 대한 어떤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 질문을 역으로 이성애자에게 던져본다면 어떨까요. ‘이성애가 선천적인 것일까, 후천적인 것일까’ 하는 질문이 황당하게 느껴진다면, 동성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느껴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16. 동성애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동성애자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명처럼 타고나거나 선천적으로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것인지 묻고 계시는군요.

동성애자란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 심리적, 성적으로 이끌리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인 사람을 지칭합니다. 즉, 동성인 상대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곧 동성애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동성을 좋아하는지, 이성을 좋아하는지, 그 자체는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긴 어려워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상대가 동성이냐 이성이냐를 떠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성을 향한 이끌림을 인정하고 자신을 동성애자로서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의지’가 관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이성애만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편견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성애자들은 스스로를 이성애자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못 느끼고, 자신이 이성애자인지 아닌지를 고민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지요. 이와 달리, 동성인 사람을 좋아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게 되기 쉬워요. 때문에 자신이 동성에게 이끌린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 고민을 거치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와, 낙인과 차별에 맞서 살아갈 수 있는 굳은 의지가 필요한 것이라합니다. 안타깝게도, 동성애자임에도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처럼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선택과 의지는 분

명 일정 정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날은 동성애자였다가 또 다른 날은 이성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의지를 다졌기에, 정체성이 자신에게 있어 진실하고 더욱 강한 것이 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정체성을 강요하거나 바꾸어줄 수는 없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동성인 사람에게 이끌릴 수 있는 확률과 이성인 사람에게 이끌릴 수 있는 확률을 동시에 타고난다고 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이성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성만 좋아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자신이 동성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조차 못해본 채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 상담소의 한 활동가는 이를 두고 ‘동성애자는 정체화 하지만 이성애자는 사회화된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답니다.

사회의 이성애주의와 동성애 혐오가 점차 사라져, 사람들이 단지 현재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탐색해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17. 자기가 레즈비언인 것은 정확히 어떻게 아나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혹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파악하게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레즈비언 정체성을 부정하고 혼란스러워 하지요.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성애 중심적이어서, 동성을 좋아하는 자신의 감정을 긍정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 레즈비언인지 아닌지를 딱 판단을 해서 알려준다면 좋겠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 인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신이 레즈비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줄 수도 없어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 해보면서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것이에요.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답니다. 자신의 정체 성에 대해 탐색해나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끌리고 사랑을 느끼는 것에 대해 솔직해지기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성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성애에 관한 좋은 책들을 찾아 읽고 동성애자 인권모 임 등을 통해 정보를 구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주위에 동성애자 친구가 있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이런 정보들은 도움을 받거나 참고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라고 의존하면 곤란해요.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감정과 고민들, 그리고 미래에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등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진솔하게 답변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동성을 좋아해본 경험이나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는 사실 등이 자신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랍니다. 동성애 정체성은 스스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성장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겪은 많은 경험들과 나의 감정,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어떤 것들이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인지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편하고 즐거운지,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유대감과 친밀감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은지, 어떠한 방식의 삶을 계획하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요. (02)718~354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자료실 <http://lsangdam.org/bbs/zboard.php?id=rights>

18. 사춘기 때 동성에게 우정 이상의 호감을 느끼곤 하는 것, 한 때 아닌가요?

상담소를 방문하는 많은 십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동성에게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지요. 우리 주위에선 ‘이성을 좋아해야 할 청소년들이 아직 어리고 철이 덜 들어서 동성을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한 때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성을 만나게 되어있다면, 십대들의 감정과 고민을 가볍게 무시해버리지요.

십대들 중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여기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억지로라도 이 시기를 피하기 위해 혹은 빨리 지나치기 위해 애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동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십대 시기의 현상일 뿐일까요? 이성에게 끌리는 감정은 지속적이고, 동성에게 끌리는 감정은 일시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십대들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쉽게 단정을 짓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극히 성인 위주여서 십대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덮어놓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많은 경우 성인들은 십대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기를 바라지요. 게다가 우리 사회가 워낙 동성에 자체를 금기시하고 왜곡된 것으로 취급하다 보니, 동성을 향한 십대들의 진지한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십대 때는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만, 더불어 ‘나는 누구인

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십대 때는 정신적인 성숙과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체성 교육이 필요한 시기죠.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민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학교에선 동성애를 죄악시하거나 일탈행위로 보며 금지하고자 하는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십대들이 자신의 동성애 정체성이나 경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자긍심을 갖기란 무척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동성애든 이성애든 건강한 관계 맺기가 중요한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애만이 옳고 동성애를 그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채 이성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지요. 만일 정체성에 대해 편견 없는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었더라면, 사회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무시한 채 이성애자처럼 사는 삶을 택하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얘기해보면, 십대 때 동성을 사랑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 평생 동성애자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레즈비언들이 십대 때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나, 동성이 아닌 이성과 연애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십대의 동성애가 “한 때” 라는 말은 편견일 뿐, 근거가 없는 얘가지요.

19. 친구들 간의 깊은 우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동료애’의 착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정인지 사랑인지 감정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 주

위에서 동성의 상대에게 끌리는 감정에 대해서만 유독 '우정'이 아니냐고 묻는 것은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의식을 깔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은 '사랑은 이성 간에만 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고정관념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말이지요. 동성에게 끌리는 감정은 우정일 뿐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하면 내면으로 상처가 깊게 된답니다.

사실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자신이 특별한 이끌림을 느끼는 상대가 동성인 경우에는, 이성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이래선 안 된다는 자기 검열이 작동하게 되니까요.

'사랑은 이성 간에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강요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사랑은 아니겠지'하며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이상한 병에 걸린 것처럼, 위험에 빠진 것처럼,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자책하기도 하고요.

성정체성을 탐색하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떠올려 본다면, 동성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착각'일 뿐이라거나 '왜곡된 감정'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동성의 친구에게 사랑을 느낀다면, 주위의 시선이나 편견 어린 말 들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내면을 열고 솔직하게 묻고 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느낀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20. 커밍아웃은 꼭 해야하는 건가요?

커밍아웃은 '벽장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으로, 영어로 'coming-out of the closet'이라고 하는 말의 줄인 표현이지요. 지금의 사회는 동성애자가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성애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성애중심적인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행동을 커밍아웃이라고 말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분이라면, 벽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의 정체성 드러내기를 벽장으로부터 나온다는 표현에 빗대어 말한 이유가 와 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커밍아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혹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커밍아웃이 동성애자에게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해주는 토대이기도 하면서, 동성애자 스스로 보다 통합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는 과정이기도 해요. 타인과 솔직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사회는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기엔 몹시 위협적인 현실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커밍아웃이 생존의 권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커밍아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수월한 편일 수 있지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인관관계나 주위의 사람들과 문화적 차이, 조건에 따라 많이 다르지요.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를 아예 없는 존재로 취급하거나 변태나 정신질환자 등 왜곡된 이미지로 묘사하곤 하지요. 그렇게 감감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고 있던 벽장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편견의 시선을 곳곳이 헤쳐나가겠다는 용기와 자긍심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자신감을 갖

게 되기도 해요.

동성애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낙인찍혀 있는 문화 속에서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은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할 사안이지요.

커밍아웃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경우,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가족들에게 알렸다가 쫓겨나지 않을까,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요. 그만큼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고요.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들의 선택이자 결정이고,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커밍아웃은 항상 권장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나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차별의 벽들을 무너뜨리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지요.

커밍아웃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나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튼튼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조금씩 생겨날수록, 동성애자의 권리가 신장될수록,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지요.

21. 커밍아웃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구에게 먼저 하는 것이 나을까요? 커밍아웃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커밍아웃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커밍아웃을 할 지 말 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할 지에 대해 정해진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동성애자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나 인간관계가 다르니까요.

다만 몇 가지 커밍아웃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커밍아웃은 일정 정도 마음의 준비를 거친 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충분한 고민과 준비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커밍아웃을 했을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포자기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커밍아웃할 때 어떤 말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지, 커밍아웃 이후 상대방이 보일 반응은 무엇일지, 앞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어떻게 대응할 지 미리 생각해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물론 타인의 마음이나 생각에 대해서 예측하기란 어렵지만, 어느 정도 머리 속으로 상황에 대해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좋답니다.

누구에게 커밍아웃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우선 자신이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할 테고요, 왜 이 사람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커밍아웃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가 동성애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 유독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요.

많은 경우,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대상은 같은 동성애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가족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는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우면서도,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가슴에 압박감과 죄책감을 갖게 만들지요. 가족들 간에 사생활이나 비밀이 없어야 하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일 거예요. 가족들의 기대치도 높고, 가족에게 생계의 일정 부분

을 의존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커밍아웃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쁘고 부정적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과 끈끈한 관계로 묶여있음으로 인해서,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커밍아웃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라는 점이에요. 이 점을 곰곰히 생각한 후에,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구성원 전부가 아닌 언니나 어머니, 동생 등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커밍아웃할 수도 있겠지요.

만약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우리 사회의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가 너무 강하다 보니, 상대방에게도 동성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겠지요. 동성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아나가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이 경우엔,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해줄 수 없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커밍아웃은 한 번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거나,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차츰 자신을 알려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떠올려보세요. 커밍아웃도 자신과 타인과의 솔직한 관계맺기의 과정이고, 타인에게 동성애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켜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마세요. 그리고 커밍아웃을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쌓이게 될 거예요.

또한 커밍아웃을 한 상대방에게 '나의 정체성에 대해 나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어요. 동성애자가 받는 차별에 대해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성적정체성을 동의없이 전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혹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아무런 대비도 없이 노골적인 차별과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좋겠어요.

커밍아웃을 하는 일은 사람에 따라선 무척이나 힘겨운 일이지요. 하지만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고 긍정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에, 밀실 속에 숨어서 살 수만도 없는 일이지요. 실제로 커밍아웃 후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을 한답니다. 위험요소도 있지만, 그만큼 충분한 준비와 생각을 바탕으로 커밍아웃을 한다면, 후회하는 확률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커밍아웃을 지지해 줄 친구들을 만나고,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같은 정체성의 친구들이나 동성애자 인권을 존중하는 주변인들이 있다면, 위험에 처하거나 상심했을 때에도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자신만의 즐겁고 행복한 커밍아웃 이야기를 경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 레즈비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나요?

레즈비언들이 겪는 어려움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고민하고, 삶의 일부로 통합적으로 받아들여 성장해나가기 어렵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이성애만을 옳은 것이자,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편견이 무척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채 자라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성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입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과서는 이성

에가족 모델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를 "이성에 눈 뜨는 시기"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범"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게재하거나, 문란하고 변태적 성행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십대들은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성적체성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하기는커녕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지요. 일부 학교에선 레즈비언 학생들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리거나 머리길이를 규제하는 등 '이반검열'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십대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지요.

이렇듯 사회적 편견이 만연한 까닭에 많은 레즈비언들이 스스로 레즈비언임을 깨닫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까지 무척 험난한 과정을 거친답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도 이성에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성애자는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가족형태도 남녀 간의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됐지요. 동성애자에겐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나, 입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레즈비언 커플이 오랜 시간을 동거하며 가족처럼 살아왔다 해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지요.

최근 해외의 몇몇 나라에서는 동성간 결혼 혹은 파트너십이 인정되고 있고 입양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멀어 보이긴 해도 언젠가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법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인정받고 가족을 이루고 살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동성애 인권운동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비단 법적으로 동성 커플이 인정받느냐 여부만 아니라, 실제로는 '비혼'으로 살아가는 많은 레즈비언들이 주위로부터 결혼 압력과 더불어 따가운 눈총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한국 사회는 특히 결혼과 출산을 '필수

'적인'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효'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레즈비언들이 가족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는답니다.

자신의 성적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어렵다는 점도 큰 고통이지요. 용기를 내어 커밍아웃했는데 가족들로부터 정신이상으로 몰리거나 감금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절친한 친구 사이가 하루 아침에 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한 많은 불이익과 폭력,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우팅'(자신의 의도와는 반하여 타인에 의해 성적체성이 폭로되는 것)을 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성폭력, 폭행을 가하는 등 혐오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이러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이 레즈비언이란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아우팅' 협박 및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범죄는 심각한 폭력과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지요. 이 점은 반드시 법적인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하고, 동성애 인권운동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레즈비언들이 폭력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도,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아우팅' 위협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이나 법적 대응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게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경찰, 검찰, 판사 등이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혐오로 인해 더욱 큰 상처를 주거나 신원을 바깥으로 노출시키거나 공정한 수사, 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다른 레즈비언 권리운동단체들과 함께 '성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지원 여성연대'를 결성해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침해사례>를 발표하고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지침> 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경찰 및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바로 알기'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요.
<http://www.support-u.org>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레즈비언들에겐 통합된 정체성을 지닌 채 온전히 존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언론 등 사회 전반이 이성애 중심적이기 때문에, 레즈비언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많은 레즈비언들이 '침묵'을 강요당하며, 스스로 분열적인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됩니다.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듣고 있어야 하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일상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척 힘들어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란 이유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무척 심각하고 심란하지요? 하지만 이런 모든 불리하고 불공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레즈비언들이 자신을 긍정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이지, 동성애 자체가 고통인 것만은 아니니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좋은 커플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다양한 레즈비언 커뮤니티 속에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자신의 인생을 찾아나간답니다. 레즈비언 인권운동도 이 척박한 토양에서 10년 넘게 곳곳이 이어져가고 있지않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가고 있는 레즈비언들 개개인 모두 격려를 받아야 할 일이죠.

23.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있나요?

세계적으로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나 제도를 둔 곳들도 많았습니다. 독일 나치 시절에는 동성애자를 수용소에 가두기도 했고, 영국이나 미국의 몇몇 주에서 동성애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했죠. 동성애자임이 드러나면 처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던 무서운 시절이 있었지요.

동성애자를 핍박하던 오랜 역사를 지나, 현재에는 각국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나 제도를 상당 부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은 성별, 종교, 인종, 성적체성, 장애 등을 떠나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인 인권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몇몇 국가 혹은 지역에서는, 성문법과 관습법 등을 통해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어요.

정책이나 법률상에서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차별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동성애금지법'이라고 명문화된 법은 없지만, 가족구성권이나 혼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죠. 몇년 전만 해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으로 포함시켰고, 심지어 군법에선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사회에선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밝혔을 때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가족들의 손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내지고, 강제로 연인과 이별하게 되고,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의 범주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포함시켰습니다. 형법은 아니지만, 우리 법에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사회가 변화하려면 법과 제도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에서 봤을 땐,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힘없이, 꾸준히 말입니다. 법과 제도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법적, 제도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24.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partnership)-법적 관계를 인정하는 국가는 어디 어디인가요?

현재 상당히 많은 국가 혹은 지역에서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법적 관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와 지역들이 법적으로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 크게 (1)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 (이성간의 결혼과 똑같은 형태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와, (2) 결혼은 아니지만 동성 커플간의 결합을 법의 틀 안에 담아내고 있는 국가들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1)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2006년 현재)

>>네덜란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한 것에 이어, 2000년 1월 1일부터 자녀 입양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게이나 레즈비언 "부부"는 법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의사와 함께,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면 누구든지 자녀(네덜란드 아동으로만 제한)를 입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벨기에

2003년 2월 13일에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통치 시절에는 동성애자들에게 최고 7년 형까지 선고하고 발가벗긴 채 전기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흑인 정권 수립 2년 후인 1996년에는, 헌법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사문화되어 있었는데, 2003년에 동성애 관계를 금지한 모든 법률을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결혼과 입양 등 동성 부부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게 됐습니다.

>>캐나다

2003년, 온타리오 주, 오타와 주, 퀘벡 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노바스코샤 주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연방정부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동의한 상태이고, 특히 오타와 주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동성 커플도 온타리오 주에서 결혼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1996년 하와이 주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와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2004년 5월부터 동성 부부들에 대한 혼인신고 접수와 결혼증명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최근까지 동성 결혼 합법화를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죠.

>>스페인

2005년 7월 동성결혼법이 제정되어 동성 부부들은 상속권과 연금수급권, 자녀입양권 등 이성 부부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2) 동성애자 커플의 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2006년 현재)

동성애자의 커플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은 '평생 동반자법', 사회연대협약(PACS), 시민결합(Civil Union) 등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핀란드, 뉴질랜드, 미국의 버몬트 주와 코네티컷 주, 그리고 영국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동성 간 결합과 동거로 이루어지는 사실혼에 대해 세금, 연금, 가족수당, 병원 면회권, 상속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법적인 (이성애자) 부부와 동등하게 줍니다. 다만 입양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5. 동성애나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표시 같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6색 무지개 깃발이 있고요, 그 외에도 분홍색 역삼각형, 검정색 역삼각형, 람다(λ) 표시, 라브리스 등이 있습니다. 먼저 6색 무지개 깃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출처 www.lambda.org)



6색 무지개 깃발(rainbow flag)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78년 길버트 베이커(Gilbert Baker)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게이-레즈비언 자긍심 행진(San Francisco Gay and Lesbian Pride Parade)에서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깃발을 제작할 필요를 느껴 만들었다고 해요. 베이커는 미국의 히피 운동과 흑인민권운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처음에는 8색으로 깃발을 디자인 했다고 하는데, 일곱 빛깔 레인보우에 핑크색을 더한 것이었죠.

베이커와 30명이 넘는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바느질하고 꿰매어서 만든 8색 무지개 깃발은 1978년 자긍심 행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이 깃발에는 분홍,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남색, 보라 이렇게 여덟 가지 색이 포함돼 있었고 각각 섹슈얼리티, 삶, 치유, 태양, 자연, 예술, 조화, 그리고 영혼을 상징했지요. 그런데 베이커가 1979년의 퍼레이드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깃발 상회(San Francisco Flag Co.)에 대량 생산을 의뢰하면서, 분홍색이 빠지게 되었어요. 당시에 그 분홍색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색상이었다고 하네요.

그 해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커밍아웃한 시의원이었던 하비 밀크(Harvey Milk)가 저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1979년 동성애자 퍼레이드 위원회는 동성애자들의 세력을 보여주기 위해 베이커의 깃발을 사용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퍼레이드 때 길 양쪽 편으로 세 가지 색으로 나누어 달기 위해 비슷한 톤이 중복되는 남색을 제외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6색 무지개 깃발은 바로 이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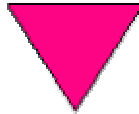
1994년 뉴욕에서 치러진 스톤월 항쟁 25주년 기념 퍼레이드에서는 폭 30피트에 길이가 1마일이나 되는 무지개 깃발이 행진 내내 1만 여명의 자원활동가에 의해 운반되었다고 하네요.

6색 무지개는 깃발로만 쓰이지 않고 다양한 팬시상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일부 동성애자들은 자동차 범퍼나 트렁크 뚜껑 한 쪽 귀퉁이에 이 깃발을 스티커로 만들어 부착하고 다니기도 하고,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선 집집마다, 또는 상점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6색 무지개 표시를 해두기도 한다고 해요.

한국 동성애자들도 6색 무지개를 우리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하는 각 단체들, 그리고 대학의 동성애자 모임 등은 퍼레이드를 할 때 무지개 깃발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6색 무지개 이미지를 가지고 제작한 열쇠고리, 뱃지, 핸드폰 고리 등 다양한 아이디어 물품들을 내놓고 있지요. 각 단체가 주관하는 여러 행사들에 참여하시면 아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6색 무지개 소품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홍색 역삼각형에 대해 알아보까요? 분홍색 역삼각형(pink inverted triangle)은 나치의 홀로코스트(대량학살)와 관련이 있어요. 나치라고 하면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떠올리기는 쉬워도 동성애자 탄압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 않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핍박당했어요.



1937년과 1938년에 강제수용소로 끌려간 동성애자의 수만 해도 2만5천 명에 육박했고, 1942년에는 히틀러가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사형까지 높일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동성의 상대에 대한 감정을 품거나 환상을 가진 것으로만 추정되어도 바로 붙잡혀 갔다고 하니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만하지요.

동성애자들은 더욱 과중한 노역에 시달렸을 뿐만이 아니라, 간수나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반 수감자는 녹색 역삼각형, 정치범은 빨간색 역삼각형, 유대인은 두 개의 노란색 역삼각형을 겹쳐 만든 다윗의 별 모양,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분홍색 역삼각형으로 저마다 다른 표식을 달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동성애자인 수감자는 노란색 역삼각형과 분홍색 역삼각형이 겹쳐있는 표식을 달고 있었는데, 이들이 수용소 안의 거의 최하위 계급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동성애자들을 탄압한 근거가 되었던 것은 당시 독일법의 175조가 담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조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한참 더 남아있어, 유대인 생존자들이 강제수용소로부터 풀려나오고 나서도 동성애자 수감자들은 그 조항이 폐기된 1969년까지 24년여 간을 더 수감돼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부터 이 분홍색 역삼각형은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됩니다. 동성애자 억압의 상징이었던 이 표식을 동성애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차별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제 분홍색 역삼각형은 동성애자 자긍심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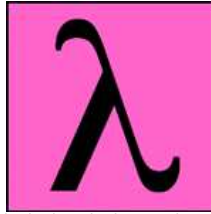
다음은 검정색 역삼각형에 대해 알아보게요. 사실 분홍색 역삼각형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달았던 표식이었습니다. 레즈비언들은 175조의 적용을 받아 수용소에 수감되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성들은 “반사회적 행위” 라는 명목으로 체포되고 수감됐습니다.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성매매 여성들이 나치가 그리는 이상적인 여성상(요리, 청소, 양육 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붙들렸습니다. 이 여성들이 달았던 것이 바로 검정색 역삼각형이지요.



이 표식은 현재 레즈비언의 자긍심과 여성들 간의 자매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억압의 상징으로 쓰였던 분홍색 역삼각형이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과 비슷한 차원에서 말입니다.

이제 람다(lambda)를 보겠습니다. 이 표시는 그리스어 알파벳 중 '람다'라는 글자의 소문자 표기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1970년대 초반부터 레즈비언 운동과 게이 운동을 나타내는 표시로 쓰였다고 해요.

이 알파벳 자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설은 없지만, '해방'을 나타낸다는 설, '동성애자 운동의 힘'을 나타낸다는 설, '편견과 무지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대한 앞의 빛'을 나타낸다는 설 등이 있어요.



1974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국제 동성애자 인권의회에서는 이 람다 표시를 공식적으로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국제적 표시로서 인정했다고 해요. 멋진 글자죠?

이제, 라브리스(Labrys) 상징을 살펴볼게요. 라브리스는 양날 도끼를 말해요. 그림을 보면 여느 도끼와 달리 양쪽으로 날이 나왔죠? 이걸 8천여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이할 만한 건, 경작용 도구이자 무기



인 이 양날 도끼가 여성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아마존의 여전사들이나, 모계 사회였던 미노안 사회의 여성들이 이 라브리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라브리스가 여성의 힘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라브리스가 여성의 대표적 상징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은 1970년대라고 하는데요. 많은 레즈비언과 여성주의자들이 라브리스를 여성의 상징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이르기까지 라브리스는 각종 팬시 용품이나 여러 가지 행사의 로고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물학적 여성 표시를 두 개 겹쳐서 '레즈비언'이나 '자매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지요.



위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했습니다.

- 최 안드레아, 『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 아미, 1997.
- GLBT Community Service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서비스 (www.lambda.org/symbols.htm)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끼리끼리 상담 사례집』, 2004.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적소수자사전 (ksccr.org/bbs/zboard.php?id=press__dictionary)

26. 여성주의는 동성애 인권운동을 지지한다면서요?

여성주의는 사회가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차별하고 위계를 형성하는 제도적, 문화적, 역사적인 것들에 반대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 지지하지요.

특히 여성주의는 이성애주의와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권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이성애주의가 동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밀함과 유대 관계를 배제하고, 여성과 남성의 성별 분리를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성애주의는 여성과 남성이 맺는 관계 속에서 성 역할을 확연히 구분 짓고,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에 위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

요. 또한 이성애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가족제도는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에게 종속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성 간 사랑의 방식이나 결혼의 방식,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정의, 가족구성원들 간의 역할의 차이와 위계 등을 생각해 보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성애주의의 폐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 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애주의의 폐해는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 침해 면에서도 심각하지만, 다수의 여성들에게도 억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여성이면서 동성애자인 레즈비언들의 경우는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관점로나 동성애자 권리를 위해서나 이성애주의에 저항을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지죠.

27. 저는 인권이란 말이 어렵고, 운동이 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동성애자를 위한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싶네요. 평범한 사람도 단체의 활동가가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인권운동을 할 수 있어요.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부터 활동의 시작이죠. 인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거나, 지금까지 활동해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해 온 수많은 레즈비언들의 삶이 조금 덜 답답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레즈비언들이 숨 죽이고 살면서 고통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마음 말이에요. 그 과정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해요.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은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깐요. 참여하기 시작하면 배움은 저절로 뒤따라 온답니다. 혼자 생각할 때보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이 떠오르고, 함께 활동하며 매순간 배우게 되지요. 상담의 경우도 약 1년간 공부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레즈비언 상담가로 태어나게 되고요. 오래 활동해 온 활동가들이라 해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 동성애자 인권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소에 문의해 주세요. 활동하고 싶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활동가들은 정말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새로운 활동가를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럼 미래의 활동가들을 기다리겠습니다. (02)703-3542

FAQ

111. 레즈비언의 건강한 성

28. 레즈비언 섹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양한 방법들이 궁금해요.

네, 레즈비언 섹스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섹스의 이미지는 여성과 남성간의 성관계 모델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여성들 간에 과연 어떻게 섹스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많이들 잘 모르곤 합니다. 레즈비언 당사자조차도 말이지요. 이는 이성간의 성관계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회의 뿌리깊은 동성애 혐오와 남성의 성기가 느끼는 쾌감 중심으로만 굳어져 온 남성 위주의 성관계 모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관계란, 이성간에만 성립 가능한 것도 결코 아니거니와 신체의 성기 부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 역시도 아니니까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죠.

섹스란 파트너와 내가 성적인 쾌감을 나누는 정신적, 육체적 행위입니다. 이 때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은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작동해요. 물론 이 말은, 몸이 느끼는 것과 정서적인 반응이 반드시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긴밀하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차원에서 긴밀하다고 하는 것에 가깝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것과 정서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일인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극에 의한 몸 그 자체의 반응은 지극히 물리적인 차원의 반응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애인과의 섹스이건 단순히 섹스 파트너와의 섹스이

건 섹스라는 행위에는 감정과 몸의 반응이 함께 개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레즈비언 섹스의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실,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실로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다' 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감대를 탐색해 나가고 상대방의 성감대를 탐색해 나가면서 또 어떻게 서로의 성감대를 자극하면 좋은 느낌이 더 커지는지를 함께 연구하다보면,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식의 터치와 자세들을 터득할 수 있을 터이니깐요. 일단 입술, 혀, 손가락, 등의 신체나 섹스 보조 도구 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방법부터가 다양합니다. 어떤 장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자세로 성관계를 갖느냐, 역시도 정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기는 '온 몸이 성감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사람의 성감대는 신체의 여러 곳에 퍼져 있습니다. 성감대 중에는 여간해서는 눈치 채지 못하게 숨어있는 곳도 있고 자기 자신도 이미 잘 알고 있을 만큼 자극에 민감한 곳도 있어요. 각각의 성감대에 전해져오는 느낌은 물론 저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간의 클리토리스 접촉 역시 가능합니다.

가벼운 포옹과 짧고 강렬한 입맞춤, 열렬한 애무, 사실 이 모든 게 섹스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과연 섹스냐, 할 때 성기에 대한 터치나 성기간의 접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적 쾌감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인데다가 그러한 성적 쾌감을 주로 느끼는 성감대라는 곳도 성기 이외의 여러 신체 부위에 널리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보다 만족스런 섹스를 위해서는, 자위 등의 방식으로 성감대를 탐색해 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감을 개발하고 파트너와 서로간의 성감대며 좋아하는 섹스 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섹스 시에 자기 몸의 느낌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스스로가 느낌이 좋은지 나쁜지, 섹스 자체가 기꺼이 하고 싶은

지 아니면 내키지 않는지, 내키지 않는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 좋다면
어째서 좋은 것 같은지, 등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무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았다 하더라도 관계 중에 무슨
이유에서든 문득 불쾌해져서 섹스를 중단하고 싶다면 그 느낌에 솔직한
반응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본인에게 좋습니다. 그런 때에는 상대
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먼저 생각
하세요.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에 억지로 계속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하세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본인의 느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해 두는 것도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섹스를 즐길 수 있
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지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티지넷(www.tgnet.co.kr)의 라이프
코너에 있는 마법의 성이나 미유넷(www.miunet.co.kr)의 s 다이어리라는
코너에 접속해 보세요. 참고가 될만한 유용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경험과 고민을 나누면서 즐거운 섹스
를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29. 레즈비언들이 잘 걸리는 성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병은 어떻게 예방하죠?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특별히 잘 걸리는 성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
들이 걸릴 수 있는 성병은 레즈비언도 걸릴 수 있다고 봐야겠지요.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부인과 질병으로는 ‘질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겪는다고 하지요. 성관계와 관계없이 잘 내
정상적인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질염으로는 세균성 질염, 곰
팡이성 질염이 있고, 성관계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염으로는 트리코모

나스 질염이 있습니다. 질 입구에 가려움증이나 화끈거림의 증상이 있거나 질 분비물의 색깔이 진하고 분비물에서 악취가 난다면 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염은 방치하면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염은 비교적 쉽게 치료됩니다.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습기 차 있거나 꽉 끼는 속옷을 입지 않고, 면으로 된 속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나 윤활유는 질 내 좋은 세균까지 죽일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질 주위를 자주 씻되, 자극이 강한 비누나 질 세정액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질 안까지 씻지는 않아야 합니다. 섹스를 자주 하면 질의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몸도 성관계도 쉬면서 몸의 면역을 높이고 방어하는 것이 최선이예요. 만약 파트너가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감염되었다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하고요.

질염에는 마늘, 도라지, 우엉,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감귤류, 토마토, 김치, 그리고 된장 등이 좋다고 하네요. 빵, 맥주, 치즈, 설탕, 밀가루 음식, 고기, 유제품, 그리고 특히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은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줄여야 합니다. 질염을 발견하고 제때 치료하기 위해서는 질 분비물 양이 갑자기 늘거나 색깔이 진해지고 악취가 나지 않는지 평소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자주 걸리는 성병으로는 ‘클라미디아’가 있습니다. 클라미디아는 보통 질이나 항문성교를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클라미디아는 분비물이 교환되지 않더라도 전염될 수 있고 분비물이 눈에 닿을 경우 눈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클라미디아에 걸릴 경우 증상이 거의 없으며, 있는 경우에도 질 분비물이 많아지거나 아랫배에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아주 경미합니다. 클라미디아는 골반염, 방광염, 화농성 자궁경부염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음부포진)’의 경우 성기의 접촉이나 마찰만으로도 전염이 가능합니다. 피부의 상처를 통해서도 전염되고 손을 통해 눈이나 입으로 전

염될 수도 있습니다. 4~7일의 잠복 기간을 거친 후, 감염된 피부와 점막에 수포들이 생기며 빠르게 번지면서 따갑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후 수포가 터져 궤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세균에 감염되면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완치되기가 쉽지 않으며 스트레스, 과로, 과음 등으로 인해 쉽게 재발됩니다.

17세에서 23세 여성들은 ‘임질’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랄섹스, 항문섹스나 성기접촉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임질에 감염될 경우 대개 증상이 없으나, 질 분비물의 양이 증가하거나 성교시 질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따가운 것도 임질 증상 중 하나입니다.

‘매독’은 임질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오랄섹스, 항문섹스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독에 걸리면 성기 주변에 딱딱하고 통증이 없는 종기가 생깁니다. 매독은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려운 편으로 이후 재발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 주변을물로 자주 씻어주고 속옷을 면소재의 헐렁한 것으로 자주 갈아입는 등 성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병과 감염된 사람과는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파트너가 성병이 감염되었다면 자신도 함께 치료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콘돔을 사용하고 구강성교 시에는 랩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행위가 끝난 후에는 성기 주변을물로 씻고 잠이 드는 것도 좋습니다.

레즈비언들 중에는 여성 간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에 걸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는 에이즈가 마치 동성애자만의 성병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이즈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모두 걸릴 수 있는 질병이며, 콘돔사용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레즈비언의 경우 오히려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밝혀진 바 있고요.

30. 성관계 도중 질에서 피가 났어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피가 났어요. 왜 그런 거죠?

성교 후 출혈이 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질주름(소위 말하는 처녀막)'이 파열되어서 그런 걸 수 있지요. 레즈비언 성교로도 질주름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질주름의 위치나 생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을 계기로 파열되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가능성은 몸이 이상이 생겼다고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궁에 혹이 생겼을 수도 있고, 자궁벽이 굵힌 걸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성교 중, 질에 상처가 생겨 출혈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출혈이 계속 되는 등 질병이 있는 것 같다면 두려워말고 산부인과에 꼭 다녀오세요. 질 내부에는 신경이 없어서 상처가 생긴다 해도 통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고 해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염 등 질병이 있는 것이라면 파트너도 함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1. 관계를 하면 처녀막이 터질까봐 무서워요.

‘막’이라고 하면 마치 랩처럼 막혀있어서 건드리면 북- 하고 찢어질 것만 같죠? 하지만 질 입구가 정말 막 같은 것으로 막혀 있다면 월경이나 질 분비물이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겠어요~ 처녀막은 사실 팽팽히 퍼져 있는 창호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탄력성이 있는 부드러운 점막의 주름으로서 가운데가 뚫려 있는 근육 조직입니다. 질의 입구 언저리에

펄럭펄럭 불거져 있지요. 그래서 요즘은 학계에서도 ‘처녀막’이 아니라 ‘질주름’으로 용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용어 사용을 하는 것이 낫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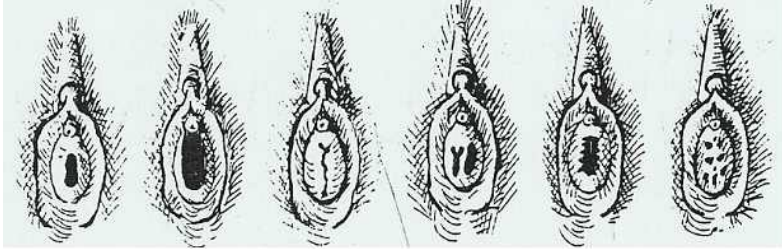


그림 출처 : 박금자(1994) 「귀가 예쁜 여자: 박금자 여성클리닉」 도서출판 민

‘막’ 이라고 하면 마치 랩처럼 막혀있어서 건드리면 북- 하고 찢어질 것만 같죠? 하지만 질 입구가 정말 막 같은 것으로 막혀 있다면 월경이나 질 분비물이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겠어요~ 처녀막은 사실 팽팽히 퍼져 있는 창호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탄력성이 있는 부드러운 점막의 주름으로서 가운데가 뚫려 있는 근육 조직입니다. 질의 입구 언저리에 펄럭펄럭 불거져 있지요. 그래서 요즘은 학계에서도 ‘처녀막’이 아니라 ‘질주름’으로 용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용어 사용을 하는 것이 낫겠지요?

이 질주름은 생긴 모양도 여러 가지라 조그마한 구멍이 몇 개나 나 있는 것이나 구멍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 약간 두툼한 것이나 얇은 것, 또는 아주 얇은 것, 탄력성이 풍부한 것, 구멍이 크게 뚫려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 등 천차만별이며 사람에 따라 각기 달라요.

자, 질주름의 실체를 확인했으니, 이제 질주름을 둘러싼 소문의 실체도 확인해 봐야겠죠?

질주름이 터질까봐 무섭다는 말은, 질주름이 터지고 나면 어떠한 나쁜 결

과가 이어지리라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질주름은 아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근육이고 왜 그 자리에 있는지도 의학적 설명이 따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즉, 파열되었다고 해서 건강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에 따라 모양이나 두께, 지름, 단단한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파열되는 경우도 다릅니다. 단지 탐폰만 사용했는데도 파열될 수 있지만 분만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질주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성관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파열될 수도 있고 얇은 것은 파열될 때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출혈이 없는 경우도 있구요. 다시 말해, 질주름이 꼭 성관계로만(처음이든 아니든) 파열되는 것도 아니고, 파열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출혈을 하는 것도 아니니 질주름의 파열 여부와 성관계시 출혈 여부가 곧 ‘순결’ 여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순결이네, 아니네를 따지고, 여성에게 순결을 강요하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사실 잘못된 것이구요.

또한 성관계시의 출혈은 질주름과 상관없이 성관계 중 질의 내벽이 긁혀서 생긴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하는 때, 원하는 상대와 서로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하게 관계를 갖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거나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나량림(1996) 「올바른 성생활을 위한 105가지 의문점」 문학과 현실사

32. 성관계 할 때 쓰는 다양한 기구들은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죠?

종종 ‘성인용품’ 이라고 쓰여진 건물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곳이 ‘성인용품’ (다른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을 파는 상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직접 가서 구매하는 게 꺼려하신다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쇼핑몰에서는 배달하는 택배 직원도 자기가 배달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이중포장을 한다고 하고요. 걸면의 회사이름도 성인용품을 알 수 없는 이름으로 표시된다고 하네요.

성인용품이 특별히 몸에 해롭지는 않다고 해요. 관리를 잘 하고 성관계시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며 배려있는 성관계를 맺으신다면, 건강에 있어 크게 우려할만한 일은 없을 거고요.

많은 분들이 달도를 찬물로 씻어야 하나,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해야 하나 궁금해 하시는데요. 달도의 경우, 대부분 실리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녹아버릴 우려가 있어요. 성관계 후에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미지근하거나 차가운)에 씻고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말리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된다고 해요. 자동달도나 바이브레이터는 물에 담그면 고장 날 수 있으니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되도록 콘돔을 달도 위에 덧씌워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안전하겠지요.

젤이나 윤활유는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을 찾아 쓰는게 몸에 해롭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무리하게 자극을 주었을 경우에는 질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3. 냉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듯이 정상적으로 분비물이 많은 여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만일 질염이라면 분비물의 색깔이 진하고 노란색으로 양이 많으며 가렵고 냄새가 납니다.(헛, 그렇다면 ‘혹시 내가 질염?’ 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2번 문항을 클릭!)

손발이 차가운 사람에게서 냉대하(냉)나 월경통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 아세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냉대하(냉)는 한마디로 몸이 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죠.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음식(생강, 대추, 꿀, 국화 등)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참고문헌

이유명호(2004)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웅진씽크빅

34. 자꾸만 성기 주변에서 냄새가 나요. 어떻게 하면 그 냄새를 없앨 수 있죠?

손가락으로 성기 그림을 따라가 보세요! 보이시죠? 질은 음순에서 자궁경부까지 뻗어 있는 회랑입니다. 점막과 근육과 섬유조직으로 붉은 벨벳 옷을 입은 아늑한 동굴이죠.

질에는 난관, 내막액, 질의 분비샘에서 나오는 점액과 유산균 및 대사산물, 떨어져 나온 세포들이 혼합되어 늘 흐르고 있습니다. 질액은 알부민, 백혈구 약간, 질과 자궁경부를 매끄럽게 윤나게 하는 뮤신으로 이루어진 깨끗한 액체예요. 이런 질 분비액의 양과 성질은 배란기에 늘어났다가 생리가 끝나면 줄어들기를 반복하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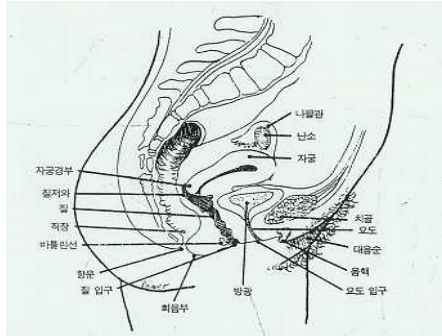


그림 출처: 나람림(1996) 「올바른 성생활을 위한 105가지 의문점」 문학과 현실사

흔히 알려진 것처럼 질은 병적이고 질척한 분비물로 가득 찬 더러운 곳이라는 관념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한 질은 입 속보다 훨씬 깨끗하며 안정적인 생태계 연못과도 같아요. 유익한 유산균(락토바실루스)이 나쁜 세균을 몰아내서 질의 생태계를 안정시키고 유해한 미생물을 막는 살균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질액은 요구르트처럼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냄새와 맛은 약간 시큼하고 수소이온농도(pH) 4.5 이하로 적포도주와 비슷한 산성입니다. 블랙 커피보다는 좀 시고 레몬보다는 덜 시죠.^^ 왜 그런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에서 분비되는 유산균은 살균제 역할을 하기 위해 산도를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그 산도가 보통 식초의 세배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약간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간혹 여성의 성기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는 이들이 여성의 성기에서 나는 냄새가 성병 때문이네, 불결한 관리 때문이네, 하며 뒷물을 자주 하라는 무지하고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만,

질 속은 안정적인 생태계이다 보니 함부로 세척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깨끗해지려고 애쓰다가 유익한 세균을 죽여서 더 엉망으로 망치니 질 세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번 정도 미지근한 물로 외음부만 씻는 것이 청결을 유지하고 성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아요.

비교하자면, 남성의 음경은 소변과 정액이 한 통로를 쓰고 있어도 더럽고 불결하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요. 질은 요도와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요구르트처럼 이미 깨끗한데도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준 게 누굴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참고문헌

이유명호(2004)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웅진씽크빅

35. 오르가즘이 뭐죠?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나요?

오르가즘이란 몸이 느끼는 절묘한 순간을 말하는데, 이는 스스로 의식적인 조절을 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의 작용으로 비롯된대요. 통상적으로는 성관계 중에 느끼는 극도의 흥분상태를 가리키고요.

손만 잡아도, 상상만 해도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인과의 섹스로 오르가즘을 느꼈든, 다양한 방식의 자위를 통해 느꼈든 오르가즘은 오르가즘이죠.

그리고 오르가즘은 어느 부위에서 유래 하는가 라는 의견이 분분한대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딱히 성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르가즘을 갖게 하는 자극의 종류나 부위는 개개인마다 천차만별

이에요. 그러니 흔히 말하여지는 것들을 잣대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지요.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요.

* 참고문헌

벤티 도슨,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Sex for One, 1992)』 (곽라분이 옮김, 현실문화연구, 2001)

조엘D.블록, 『부부가 꼭 알아야 할 88가지 성 이야기』 (하태준 역, 가야미디어, 1998)

36.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런데 애인과 섹스를 할 때 삽입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죠. 남들은 좋다고 하던데 저는 아프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삽입 섹스가 즐겁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우선 그것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네요. 어떤 방식의 섹스를 선호하는가 혹은 좋아하지 않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그에 따르는 이유도 다 다르고 말이지요. 물론 어떤 방식을 좋아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어떤 것을 싫어하는가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섹스 방식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도 내지는 기피도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지요. 절대로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삽입 섹스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삽입 섹스가 전혀 좋지 않다는 것을 애인에게 털어놓아 보셨나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애인에게 죄책감 같은 것을 가질 필요 없어요. 싫은 느낌, 원치 않는 느낌, 그런 느낌들에 대해 애인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두 분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탐색해 나가볼 수 있다면 애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건네 보시는 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삽입만이 섹스의 전부인 것도 아니랍니다. 그런 방식의 자극이 아니더라도 클리토리스를 비롯한 몸 곳곳의 성감대를 자극하는 것을 통해 충분히 쾌감을 느낄 수 있지요. 파트너 간에 서로의 다양한 성감대를 찾아보고 서로 어떤 자극이 더 좋은 느낌을 주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이제까지보다 더 만족스러운 섹스를 나눌 수 있게 될 거예요.

또, 손가락이나 dildo 같은 기구를 삽입하더라도 아프지 않은 방식으로 질 안쪽의 성감대를 자극할 수 있답니다. 만일 이미 몸 전체가 충분히 자극을 받은 상태에서 아프지 않도록 부드럽게 질 내부를 자극해 본다면 질 안쪽에서도 성감을 느끼는 곳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예요. 물론, 삽입 자체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노력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아무쪼록 건강하고 즐거운 섹스를 파트너와 나누실 수 있게 되길 바랄게요.

37. 애인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그리 즐겁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질 못하겠어요. 이게 불감증인가요? 어떻게 하면 불감증을 없앨 수 있나요?

성관계가 즐겁지 않아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이시군요. 애인을 사랑하고 있는데도 애인과의 성관계가 즐겁지 않다면 '내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또 많이 속상하시기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하지만 섹스가 전혀 즐겁지 않다고 해도 그런 본인이 이상한 사람인 것은 전혀 아니랍니다. 섹스가 즐겁지 않은 데는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별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섹스라는 것 자체를 그닥 즐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

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의 느낌에 솔직하게 반응하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점일 것이에요. 그러므로 섹스가 즐거우면 즐기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즐겁지 않다면 일단 섹스를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성관계라 해도 억지로 해야 하는 게 돼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애인과 섹스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쾌감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 보도록 할까요. '불감증'이라는 이름의 의학적 증상은 사실 그 의미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간단히 말해 '성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섹스를 할 때 쾌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 바로 '불감증'이라는 의학적 증상의 의미이지요. 그래서, 섹스가 즐겁지 않은 경우, 왜 굳이 섹스 같은 것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 등을 다룰 때 이 '불감증'이라는 낱말에 갇혀버리면 불충분한 이야기에만 머무를 수 있어요. 성욕 자체가 없는 것도 분명 섹스를 즐겁지 않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일 터이니까요.

성관계가 즐겁지 않다면, 성욕 자체가 없는 건지, 욕구는 충분히 있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건지, 욕구도 있고 흥분도 곧잘 하지만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등과 같은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경우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건지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이런 경우들이 '그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네요. 이 말은, 그런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강박적으까지 노력할 필요는 결코 없다는 이야기와도 같아요. 다만, 즐겁게 섹스하고 싶고, 그런 만족스러운 섹스를 통해 쾌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다면 그 때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터이지요.

그러면, 성관계를 즐기지 못하는 원인일 수 있는 몇가지 사실들에 대해 살펴볼까요. 성욕 자체가 없건, 자극에도 특별한 반응이 없건, 흥분을 하긴 하지만 오르가즘에는 이르지 못하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본인이 성폭력과 같이 성적으로 불쾌하고 폭력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경우, 여성이 성적 욕구를 갖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사회의 분위기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지내온 경우, 애인이 본인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멋대로 성관계를 이끌어왔을 경우 등이 바로 성관계를 즐거운 것으로 느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레즈비언의 경우,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내면화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 때문에도 섹스시 긴장할 수 있는 확률이 다분히 높은 것이구요.

이럴 경우 성관계를 할 때 자신의 신체에 오는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섹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의 수치심에 시달릴 수 있으며, 심지어 내 몸을 훼손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겠지요. 그런 느낌들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진행중인 성관계에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내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그러므로 성관계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임할 수 있으려면, 섹스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나 자기 몸에 닿아오는 터치들에 이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곧바로 상기하며 다시금 아파져 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조금씩 완화시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본인이 오롯이 혼자 하기 어려운 것이라 애인을 비롯한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해요.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페이스로 천천히 해 나가세요.

우선 애인에게 자기 자신의 느낌을 차분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전달해 보세요. 성관계 시 애인의 거칠기만 한 행동으로 불편하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하시고요. 내 몸의 느낌을 보다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

관계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애인에게 건네고 나면 두 분이 함께 이후에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의논해 나갈 수 있을 것이예요.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애인과의 관계 자체가 위태로워 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애인이라면 더더욱 상대방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펴줘야 하는 법이니까요. 애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만 연인 사이도 더욱 가깝고 풍요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못나서 괜히 애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나 자신을 스스로 보살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해요. 몸이 느낄 수 있는 성감은 충분히 계발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예요. 성관계에 대한 터부를 깨나가는 과정에서 점차로, 자기 몸이 어떨 때 흥분되고 기쁘지에 대해서 찾아나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성관계를 가지는게 더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좋은지에 대해서부터 내 몸이 어떤 자극에 민감한지에 이르기까지 만족스러운 섹스를 위해 생각해 볼꺼리들은 참으로 많답니다.

관련된 자료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들을 찾아 보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자신의 몸과 자신의 지난 경험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담소에서도 도울게요.

FAQ

IV. 동성애에 대한 편견들

38. 동성애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동성애자는 이성애 성향이 아닌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것 외에는, 특정한 기질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애자들의 모습이나 성격이 각기 다르듯, 동성애자들도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곳에서 살거나, 특정한 색을 좋아하거나, 특정한 스타일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성애자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심지어 가족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는 가설이 사회엔 많이 떠다니고 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 편견에 근거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의 결과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뭐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이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이성애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이에요. 남자는 파란색이고, 여자는 분홍색인가요? 참으로 얼토당토않은 질문이지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황당하다는 생각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요.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성애자들

의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억지겠죠.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이 비슷한 외모에,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취향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동성애자에 대해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먼저 ‘동성애자’라는 말을 ‘이성애자’라는 말로 바꿔서 다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리석고 황당한 질문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만큼 동성애자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39. 레즈비언은 다 남자 같은가요?

레즈비언이 남자 같은 사람이라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게 되는데요. 먼저, ‘남자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의 남성들을 둘러보세요. 생김새도, 성격도, 취향도, 잘하거나 못하는 것들도 각기 다르죠. 사회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 데 묶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신기하게도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무 자르듯 딱 나누고 있지요? 그것은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강요를 받아들여, 자기 자신을 여자답게, 혹은 남자답게 보이도록 은연중에 노력하게 되죠. 어릴 적부터 ‘사내 애가 계집애처럼~’ 또는 ‘여자애가 왜 저럴까’ 식의 말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여성성과 남성성의 잣대를 들이대어 평가하고는 하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아요.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분해서 여성은 이래야

하고 남성은 저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다양한 개성을 무시하거나 틀에 박힌 방식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좀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랍니다.

아마도 레즈비언은 다 남자 같은가 라는 질문에 담긴 ‘남자 같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통상 쓰이고 있는 남성다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요.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대범하고, 도전의식이 강하고, 성격이 거칠고, 공격적이고 등의 의미 말이지요. 또한 머리스타일은 짧고, 화장을 안 하며, 치마를 입지 않아야 할 테고 말이에요.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다 “남성적”인 것은 아니랍니다. 어떤 레즈비언들은 사회에서 제시한 남성성의 기준에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레즈비언들은 남성성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이성애자 여성이라고 해서 다 “여성적”인 것도 아니지요? 이성애자 여성들 중에도 바지를 즐겨 입고, 대범하거나 혹은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많잖아요.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듯, 레즈비언들도 각기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즈비언이 남자 같다’는 말에도 편견이 들어있지만, ‘남자 같다’는 말 자체에 담겨 있는 편견까지 생각해볼길 바래요. 여자답고, 남자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자답지 못한 여자’ ‘남자답지 못한 남자’로 낙인 찍히면서 질책을 받고, 자신만의 개성을 존중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으니깐요.

40. 같은 여자로서의 동질감, 남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닐까요?

동질감만으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

나,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다 라고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동질감도 사랑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는 다른 이질감 때문에 상대에게 끌린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특별한 호감, 묘한 이끌림이라는 것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매혹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에 대해 떠올리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느낌 혹은 강렬함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단순히 동질감 혹은 부담감 여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요.

만일 여자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같은 여자로서의 동질감 때문이거나 남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면, 한국의 대부분 여자들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에선 어릴 적부터 남녀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으니깐 말이죠.

레즈비언들 중에는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하기에 편하다면서 잘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남자들에게서 부담감보다 친근함을 느끼는 여자들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연인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자체가, 남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자를 사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답이 될 것 같군요.

남자들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자에 대해 호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보장도 없고,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자들에 대해 부담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증거도 없답니다. 그러므로 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하는 질문은 마땅한 답을 찾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건 레즈비언이든, 이성애자든, 개인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41. 어릴 때 남성으로부터 안 좋은 경험을 당한 여성이

남성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레즈비언이 되는 건 아닌가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남성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경험을 당한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선 남성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여성이 쉽게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때론 폭력의 피해자가 되곤 하지요. 남성으로부터 폭력, 특히 성적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 남성에 대한 혐오감이나 사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차별적인 세상에 저항하려 하는 여성들도 있지요.

그러나, 남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이 모두 레즈비언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 정체성을 결정하거나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수반하고 있다고 봐요. 따라서 성폭력 피해의 경험이 레즈비언 정체성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겪은 이성애자 여성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또한 레즈비언들 중에 남성에 대해 혐오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즉, 피해경험이 레즈비언 정체성 형성과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가 여성으로 하여금 레즈비언이 되도록 만들었다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이끌림 그 자체가 여성으로 하여금 레즈비언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이해가 되려나요?

우리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존재합니다. 성 정체성 자체는 물론, 교제관계 등을 쉽게 드러내며 살 수 없고, 집안에서나 직장이나 사회 전반에서 이성과의 결혼압박에 시달리는 등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억압은 심각합니다.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레즈비언으로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과정 속에서 확립되는 것입

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은 레즈비언이라면, 아무리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좋은 남성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성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남성에게 느끼기는 쉽지 않겠죠. 레즈비언 정체성은 여자가 좋은 남성을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만에 하나, 남성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자신이 레즈비언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여성이 굳이 이성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는 일이에요.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그 자체가 불행한 일도 아니랍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남성에 대한 혐오감도 그것이 남성폭력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그러한 감정 자체를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후유증이니깐요. 다만 분노와 피해의식을 속으로 삭히고 묻어두려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인과 사회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42. 레즈비언은 절대 남자랑 사랑할 수 없나요?

여성에게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이끌림을 느끼는 여성이, 자신이 그러한 감정과 욕구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 속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해 나가며 살아가고자 할 경우, 이 여성은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취급하며, 동시에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상당히 제한하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만연해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여성이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되기까지 즉, 레즈비언 정체성을 갖게 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본인이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라는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규정한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남자를 사랑하게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자신이 이성애자인줄 알고 살았던 여성이 중년의 나이에 동성인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듯이, 반대로 레즈비언에게 그런 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레즈비언은 절대 남자랑 사랑할 수 없나?’ ‘게이는 절대 여자랑 사랑할 수 없나?’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머리 속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동성애자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흔히 묻는 질문 중 하나예요.

만약 당신이 이성애자 남성이라면 ‘레즈비언은 절대 남자랑 사랑할 수 없나?’ 라고 묻기 이전에, 누군가 이성애자인 당신에게 ‘당신은 절대 남자랑 사랑할 수 없나?’ 라고 묻는다면 무어라고 대답을 할지, 어떤 느낌이 들지 먼저 생각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43. 여중, 여고 같은 데에 레즈비언들이 많다면서요? 그건 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학교라고 해서 레즈비언들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학교에 이성애자 학생들도 많고, 남녀공학에도 레즈비언들

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중, 여고에 레즈비언들이 더 많아 보인다면, 그것은 남녀공학보다 여학교에서 여성들끼리의 친밀한 관계가 조금 더 쉽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또 여성들 간의 교제가 남녀공학보다 안전한 면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레즈비언 관계가 여학교에서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자가 별로 없어서, 좋아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동성인 사람을 사랑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순 없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이고, 상대의 성별과 무관하게 소중한 감정이 될 수 있지요.

‘여자끼리 있어서 레즈비언이 된다’는 추측은 동성애자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길면 동성애자다 라든지, 남자형제가 많으면 게이가 된다 등 동성애자가 되는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터무니없는 시도들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한 시도들은 동성애를 잘못 된 것, 비정상인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아무도 남녀공학 또는 여학교에 왜 이성애자가 그렇게 많은지는 묻지 않지요.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을 이성애자에 그대로 대입해 역으로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나요?” 라는 질문처럼 말입니다. 이성애자들은 받지 않는 그런 종류의 질문을 왜 동성애자들은 그토록 많이 받아야 하며,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까요?

레즈비언은 언제, 어디든,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대, 한 공간에만 특정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44. 레즈비언들도 서로 사귀는 때 남자 역할, 여자 역할 이렇게 나누나요? 많이들 그런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굳이 왜 동성끼리 사귀나요? 이성을 만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즈비언들이 사귀는 관계는 사람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것을 굳이 남자 역할, 여자 역할로 나누어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에 깔린 생각들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하는 것이 남자 역할인가요? 상대방을 챙겨주기 좋아하는 것이 여자 역할인가요? 혹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남자 역할인가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수줍음을 잘 타는 것이 여자 역할인가요?

레즈비언 커플 간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성애자 커플 중에도 관계를 이끌어가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챙겨주기 좋아하는 남성도 많이 있잖아요. 남자 역할, 여자 역할에 대한 규정은 이성애중심의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고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남성다움/여성다움이라는 성 역할 이데올로기는 버려야 할 구시대적 유물입니다.

레즈비언 커플 간의 관계에서, 성 역할이 구분된 경우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특히 1970년대 레즈비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다 보면, 레즈비언들 사이에서도 남자 역할, 여자 역할과 같은 구분이나 규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엔 우리 사회에 레즈비언 역할 모델이 전혀 없었고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이었죠.

그런 사회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여 교제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여성을 좋아하려면 자신이 남성이 되거나, 상대방이 남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레즈비언 커플 관계에서도 이성애자들의 커플 관계처럼 남성적, 여성적인 역할 구분이 존재했던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당시 레즈비언 커플 관계가 이성애자들의 커플 관계와 같았다거나, 굳이 동성애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 커플 관계가 이성애 커플 관계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도, 굳이 그 사람들이 동성과 사귀었던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레즈비언 권리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십여 년이 지났고, 온라인, 오프라인 레즈비언 커뮤니티 수도 급속도로 증가한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이나 삶의 변화와 더불어 레즈비언 커플의 관계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레즈비언 커플 간에 굳이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하는 구분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랑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됐죠. 그런 식의 역할 구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성 역할 구분이 존재했던 시절이나, 그렇지 않게 된 지금이나, 여성과 여성의 교제가 바로 레즈비언 커플 관계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성을 만나는 것과는 다르지요. 무엇보다, 레즈비언 정체성과 교제 관계, 커플 관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주어질수록 좋겠지요. 차별적인 사회가 만들어 놓은 획일적인 인간관계, 삶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관계의 모델과 삶의 방식을 찾고 만들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또한 남성 역할, 여성 역할과 같은 이분법적인 분리는 동성애 관계뿐 아니라 이성애 관계 속에서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성애 커플 사이에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는 저래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정, 얼마나 답답하고 우스꽝스러운가요? 개인의 자율권과, 커플간의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전근대적인 규정이랍니다.

45. 동성애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탈출한다는 것은 나쁜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동성애는 질병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요. 잘못이라면 오히려, 이성애만이 옳으며 동성애는 비정상이다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성애중심적인 자신의 사고방식으로부터 탈출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성애중심적 사고방식은 그 자체가 타인의 존재와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니까요.

동성애는 잘못된 것도, 질병도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성애로부터 탈출해 동성애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동성애로부터 탈출해 이성애자가 되는 그런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이성애로부터 탈출해 동성애자가 되는 방법을 알 수 없듯 말이지요.

46. 동성애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렇지만 이성애가 정상인 건 맞지 않나요?

진심으로 동성애자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믿기 어렵습니다.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생각 자체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성애자의 인권이 존중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 사회가 이성애만을 옳고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데 있죠.

동성애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이성애나 동성애나 이상할 것도 없고 우열을 가릴 것도 없는 사랑이자 사람의 성 정체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성애자 정상이라고 믿고

있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세요.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그런 이분법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의심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가 이성애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성애만을 정상이라고 간주하고 동성애를 억압해왔기 때문입니다. 왜 이성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삶만이 정상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삶은 비정상이 되어버려야 하는지, 그것이 옳은지 질문을 던져보셔야 해요.

동성애자뿐 아니라, 어떤 상대와도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 성관계를 갖지 않는 성직자들, 동성 혹은 이성친구들과 공동체를 꾸려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이나 정착지를 가지지 않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개인들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전형적인 이성애자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비정상인가요?

동성애자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성애만이 옳고 동성애는 그르다는 편견부터 버리고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시길 권합니다.

47. 이성애주의가 왜 문제인가요?

먼저, 이성애와 이성애주의는 다르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이성애주의란 오로지 이성애만이 정상적인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성애자라고 해서 모두 이성애주의자인 것은 아닙니다. 이성애 자체를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주의가 문제라는 것이예요.

이성애주의가 문제인 이유는 이성애주의는 이성애만이 정상이고 옳은 것이라고 보고, 동성애를 그릇된 것,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동성애자

를 억압하고 차별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모든 이들에게 이성애적인 질서를 강요하며 사람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기 때문이에요. 이성애적 질서란, 이성애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인연을 맺고, 혼인 제도로서 이를 공고화하며, 그 안에서 출산과 양육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가부장적 가족체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애주의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 분리를 강화시킵니다.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을 나누고, 여성과 남성 간 위계를 만들지요.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성애주의가 낭만적인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에게 의존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혼인을 통해 남성에게 종속시킨다고 비판합니다. 또 동성간의 사랑이나 친밀감, 유대관계를 배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지요.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신비화, 혼인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결합,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출산과 양육 등은 보편적인 삶의 형태라고 생각되곤 하지만, 사실은 어느 시대에나 같은 방식으로 존재해왔던 것이 아니지요. 현재와 같은 결혼과 가족제도는 서구 근대에 이르러 등장한 것입니다. 여성과 사랑을 하고, 특정한 나이 대에 결혼을 하며, 결혼한 관계에서만 출산을 하고, 부부가 양육을 담당하는 가족제도가 인간의 절대적인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성애주의는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이성애주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성애만이 아름답고 정당하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믿음은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 의해 널리 퍼지고 있죠. 대중매체를 통해 사람들은 낭만적인 이성애에 감동을 받고 매료 당합니다. 이성과의 사랑이야말로 개인을 행복하게 하며, 법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사랑의 완벽한 결실을 맺는 거라고 믿지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성과 사랑하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으면 삶이 불행해지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매료되는 감정은, 그 상대가 동성

이든 이성이든 소중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제기간이 길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교제라거나, 상대와 합법적으로 가족을 이루었다는 이유로, 그 관계가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교제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하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삶이란, 사람에 따라서 연인 혹은 배우자와의 사랑뿐 아니라 다른 여러 요소와 조건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대부분 이성애자들은 자신이 이성애자라는 점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타인의 사랑 없이도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 세상은 이성애만이 옳고 절대적이라고 가르쳐왔으니까요. 동성애자뿐 아니라 이성애자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성애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장시켜 나아가갈 계기를 빼앗습니다. 이성애주의는 자신을 탐색할 기회, 동성과 이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대감과 친밀한 관계의 경험을 자신 안에서 의미 있게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해물을 넘어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방식의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태도를 가지고 내린 결정과 선택은 반드시 존중 받아야 하고요.

이성애주의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고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모두를 통제하면서 힘들게 하죠. 특히 동성애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이성애주의를 깨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48.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기독교도라면 동성애자가 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기독교도라면 동성애자가 될 수 없다고요? 기독교를 믿는 동성애자들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중엔 교회에서 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활동하지는 않지만 평소 마음 깊숙이 기도를 올리며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기독교와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먼저 이렇게 생각해보았으면 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말이지요. 세상에서 고통 받는 자 다 내게로 오라던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해 주어진 말씀인지에 대해서도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성애자가 아닌 동성애자란 이유로 특정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억압해선 안되겠지요.

신이 성서를 통해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이야기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선 안 되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의 말씀을 왜곡해서 동성애자를 박해해왔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언어를 담고 있는 만큼, 언제나 새롭게 읽히고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글귀죠. 성서는 다양한 버전과 해석이 존재하며 오랜 기간 동안 다시 쓰여져 왔고, 지금까지도 새로 발굴되고 있답니다.

성서 구절들이 옛날 옛적의 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오늘날에도 널리 읽히는 경전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거예요. 성서에는 여성차별적이거나 이민족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들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신이 여성을 차별하고 이민족을 차별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 앞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기독교의 정신에 더 가까울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여, 성서 구절에 동성애를 금하는 듯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비하하거나 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투영해서 성서 구절을 해석해낸 건 아닐까 의심해보아야 하고요. 동성애를 금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손님 환대의 법칙’을 어긴 것이지 동성애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상세히 알려주는 책들도 나와있는데 그 중 다니엘 헬미니악의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라고, 해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권하고 싶네요. 사회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가장 먼저 올바른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에서 주위 들은 이야기들은 편견과 혐오를 재생산할 뿐이니까요.

기독교를 믿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종교인들의 ‘호모포비아’ (동성애혐오증)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과 신앙이 배치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자살기도를 하는 이도 있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며, 불행을 감수해가며 억지로 이성애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슬프고 잔인한 현실이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동성애자들도 많고, 성직자인 동성애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 중에서 동성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이들 모두 신의 사랑과 기독교의 정신과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도 존재하지요. 우리 사회도 기독교와 동성애를 둘러싼 많은 오해를 적극적으로 깨나가고,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 사이에서

번민하는 일도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49. 동성애자들은 왜 권리만 주장하나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동성애자건 이성애자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 받고 살아가야 하죠. 동성애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 속엔 동성애자에 대한 여러 편견이 담겨 있을 거예요.

가령, 동성애자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낙오자라고 생각하거나, 정신병자라고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지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곳곳에 존재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삶을 영위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마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동성애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의무는 아니라는 점부터 알아야 할 것 같군요.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이들이 많고, 결혼 유무를 떠나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이들도 많죠. 그러나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것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지만, 타인이나 사회나 국가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오히려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살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혼인 제도 밖에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할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죠. 또한 아이를 입양하여 키울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권리만 주장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동성애자 권리운동은 우리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 단지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무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사회에서 차별을 받거나 권리를 침해 당해선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성애자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도 아니지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존중 받지 못한 채 무시당해온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권리운동이 주장하는 동성애자의 권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차별 받지 않고 삶을 긍정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바로 그것입니다.

50. 동성애자들은 가족을 붕괴시키고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람들입니까?

제도는 질서든 모두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도와 법과 같은 것을 저 위의 높은 사람들이 결정짓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정불변의 것들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면 분명 우리 각각의 의견을 반영하게 할 권리가 모두에게 있는데 말이지요.

지금의 가족제도는 오로지 혈연중심의, 혼인이라는 법적 계약을 중심으로

맺어진 이성애자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 또는 ‘건강가족’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니깐요.

부모 양친이 없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차별을 받는 아이들,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싶어도 동성 간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자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혼 혹은 사별을 통해 한부모가 된 사람들,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독신자들 모두 불합리한 가족제도로 인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지요.

때문에 동성애자 권리운동 진영뿐 아니라 여성운동, 인권운동 진영에서 가족제도의 차별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비롯해 ‘정상가족’ 중심의 현 가족제도로부터 비껴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가족을 붕괴시키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현 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가족제도를 비롯해 사회의 많은 제도들이 사회구성원의 평등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겠지요.

51. 동성애자들은 다 에이즈에 걸리나요?

AIDS(후천성면역결핍증)는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질병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AIDS에 대해 공포심은 강한 반면, 제대로 된 지식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요. 그러나 AIDS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AIDS에 대한 생각이 상당 부분 거짓이었거나 쓸데 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AIDS는 감염인의 체액(정액, 질 분비물, 혈액, 모유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경우 HIV(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기

나 음식으로는 전염되지 않고요.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감염 되는 것이 아니라, HIV감염인과 콘돔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감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HIV감염인은 이성애자일 수도 있고 동성애자일 수도 있으며, 어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으며,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AIDS라는 질병이 발견되기 시작했을 즈음, 당시 정부의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 AIDS를 동성애자와 연관시켰다고 하지요. 아직도 동성애자들이 AIDS의 주범이라는 식의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동성애자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과, 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AIDS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HIV감염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 아니라 AIDS를 제대로 예방할 수 없게 되죠.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AIDS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동성애자만 HIV에 감염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은 결코 HIV에 감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위험한 일입니다.

AIDS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HIV감염인의 체액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지요. AIDS는 다른 전염병에 비해 전염성이 약한 편이며, 사람에 따라 선 암과 같은 질병에 비해 오히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젠 ‘에이즈에 걸리면 죽는다’는 말도 거짓임이 밝혀졌지요.

또한 HIV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습니다. HIV감염인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정기기를 공유하거나 사무실을 함께 쓰는 것, 욕실을 함께 사용하거나 전화기를 같이 사용하는 것, 함께 식사를 하는 것, 볼에 키스하는 것, 악수하는 것도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HIV감염인을 멀리 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또한 HIV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니다.

AIDS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예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HIV 감염과 동성애를 연결시키는 생각은 편견이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아이샵<http://www.ishap.org>

한국에이즈퇴치연맹<http://www.ishap.org>

대한에이즈예방협회<http://www.aids.or.kr>

구야홈닷컴 <http://gooyahome.com>

52.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해 알게 되면 동성애자가 아닌 청소년들까지 물들이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동성애는 나쁜 것이니까, 10대들이 배워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10대 때에도 인간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대들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 무시해버리는 태도는 좋지 않지요.

동성애는 이상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이끌림이죠. 동성애자는 이상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매체를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성애적인 질서를 습득해나갑니다. 이성애만을 배우죠.

동성애는 쉬쉬해야 할 화제도 아니며, 검열이 필요한 소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 왜곡되지 않은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지요. 당연히 10대들 역시 동성애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아정체성을 한창 확립해 가는 시절에는 더더구나 동성애, 이성애와 같은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배워 알 수 있어야 하죠. 이것은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10대들도 동성애에 대한 각종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10대들이 동성애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하나에 대해 노심초사 할 일이 아닙니다.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10대들이 너무나 정보가 없어서 당혹스러워 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이성애자인 10대들을 위해서도 성 정체성 교육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이성애자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경험과 종합적인 정체성 고민을 통해 이성애자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야 하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10대들 당사자입니다. 10대의 성 정체성에 대해 당사자들만큼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탐색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정보는 동성애 자체만이 아니라, 성 정체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인권의식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요.

FAQ

V. 트랜스젠더 관련 상담

53. 트랜스젠더란 누구인가요?

트랜스젠더(transgender)란 신체적인 성별과 정신적, 사회적인 성별이 정반대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로는 연예인 하리수씨가 있겠지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이 자신을 남성이라고 생각하거나(FtoM: female to male),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것(MtoF: male to female)입니다.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이 되고 싶어 한다거나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남성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타고난 신체적 성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어찌할 수 없이 자신의 내면의 성별은 신체적인 성별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통해 자신의 본래의 성별에 부합하는 신체를 갖추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트랜스젠더가 다 성확정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확정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를 트랜스섹슈얼이라고 구분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본인이 타고난 신체적인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사회는 이러 저러한 원인설과 정신질환을 들먹이며 공격하곤 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조건이 고정 불변한 것이거나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분명한 것은 트랜스젠

더들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 받아야 하는 사회 구성원임이라는 점입니다.

2006년 6월 현재, 한국 사회는 아직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적상 성별 정정의 경우엔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호적정정 허가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확정수술에 국가적 보증을 적용할 것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호적상 성별 변경을 용이하게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54.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는 뭐가 다른가요?

동성애자는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으로 이끌리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점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기 정체성 안으로 통합한 이들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신체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즉,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이성애자나 하는 것이 이끌림을 느끼는 ‘상대의 성별’과 관련된 문제라면, 트랜스젠더는 ‘본인의 성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트랜스젠더 중에는 동성애자도, 양성애자도, 이성애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하리수씨처럼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트랜스젠더 여성(MtoF: male to female)의 경우, 사랑하는 대상이 남성이라면 이 사람은 이성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여성(MtoF)이 여성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죠. 이 사람은 동성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를 혼동하는 이들이 많은 까닭은, 사람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때문이지요. 즉, 레즈비언은 남자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게이는 여자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이며, 동시에 여성과 남성의 외모와 성역할에 대한 그릇된 고정 관념입니다.

여자다움, 남자다움이라는 것이 따로 규격화되어 정해져 있을 필요도 없고 그에 맞춰 사람들이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 개념 속에 구속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다양한 성격만큼이나 다양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애자도 마찬가지지요.

55. 남자 같은 여자나 여자 같은 남자가 트랜스젠더인가요?

남자 같은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자 같은 남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머리가 짧고, 치마를 입지 않고, 걸음걸이가 성큼성큼. 화장을 하지 않고, 목소리가 걸걸하고, 무릎을 모아서 앉지 않으면 남자 같은 여자일까요? 반면에 목소리가 조용조용하고, 부드러운 성격에, 조심스러운 사람이 여자 같은 남자인가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치마를 입는 것보다 바지를 입는 것이 편할 수 있지요. 여자라고 해도 말이에요. 시간을 들여 화장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편한 옷차림과 편한 걸음걸이, 편한 자세로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성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자 같지 않다, 남자 같은 여자다, 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가 요구하는 여자와 남자의 모습이 있어요.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는 저래야 하죠. 그 룰에서 어긋났을 때 사람들은

“여자가 왜 저래?” “저게 남자 맞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들은 편견에 근거한 것이고, 아주 어리석고 잔인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한에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육체적 성별을 거부하고 다른 성별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도 다른 성별로 보이기를 바라지요.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남성/여성이라고 간주하는 성별로 자신의 외모를 바꾸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닌다 거나,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닌다고 손가락질을 하지요.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누구도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라고 불리길 원치 않는답니다. 여성, 혹은 남성으로 인정 받고 싶어하지요.

겉으로 드러난 차별과 폭력뿐 아니라, 사회와 사람들의 시선과 대화들도 개인을 힘들게 합니다. 인권이란 구름처럼 거창하거나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 주는 것. 길을 걷다 “저 사람, 여자야 남자야?” 하고 소곤대지 않는 것. 넌 여자답지 않아, 남자답지 않아 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 작은 행동이 시작이고 반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56.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트랜스젠더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사귀는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다른 성별의 사람처럼 되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동성 간의 사랑과 이성 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성별의 사람과 사랑하고 사귀고 함께 인생을 일궈나가고 있답니다.

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동성애자 정체성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정체성으로 인정하고 긍정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TV를 켜 봐도, 영화를 보아도, 주변에선 이성애자 남녀간의 사랑과 가족 얘기만 주 되게 흘러나오고 있으니 ‘이성애만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형태의 사랑’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쉽게 제거되지 않지요.

그런 이유로 동성애자들 중엔 ‘같은 여자를 좋아하다니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여자를 좋아하는 나는 혹시 남자인 것이 아닐까?’, ‘사회에서 말하는 트랜스젠더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고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하고 호적 정정까지 하면 우리 사랑을 남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요.

남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에게 상담원이 당신은 레즈비언이지 트랜스젠더가 아니다 라고 하거나, 당신은 트랜스젠더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답니다. 다만,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가 되고 싶고,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인 것 같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자주묻는질문들(FAQ)의 “트랜스젠더”와 “레즈비언” 항목을 찾아 읽어보면서, 이제까지의 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며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셨으면 합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설명과 레즈비언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과 고민들에 어느 쪽이 가까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님의 성 정체성을 규정지어 줄 수는 없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둘러싼 판단과 선택은 항상 본인의 몫이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자를 좋아하고 남

자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니까 성별을 바꾸어야 하나 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보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모습이 나의 가장 솔직하고 편한 모습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세요.

57. 여자인 제 몸이 너무 싫어요. 가슴도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생리하는 것도 불쾌해서 자궁을 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트랜스젠더가 아닌가요 싶은데요.

보통 트랜스젠더를 규정짓는 기준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신체에 대한 거부감과, 다른 성별의 신체를 지니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누군가가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트랜스젠더가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생물학적인 신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거나 다른 성별의 신체를 욕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님이 유방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월경을 하는 것도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분명 생물학적인 여성의 몸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님을 트랜스젠더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가슴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귀찮아 하고, 월경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괴로워한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여성의 신체를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한 탓이기도 해요. 유방을 옷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옥죄어 감추게 하고, 월경을 불결한 것으로 느끼게 하며, 월경통 등에 대한 배려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깐요.

어린 시절부터 남성들의 경우, 자신의 외부성기를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도록 교육받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여성의 신체에 대해 '남성의 페니스가 없는' 결핍된 몸으로 폄하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답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이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든 간에,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조건이랍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긍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혐오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여성들이 모두 ‘내가 트랜스젠더가 아닐까’ 하고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과 느낌을 수용하는 편이지요. 타고난 신체를 견딜 수 없어하고 특히 유방이나 자궁과 같은 성기를 제거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트랜스젠더가 아닌지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이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여겨왔는지 여부일 것 같아요. 유방과 자궁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과, 자신의 성별에 대해 남성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트랜스젠더(FtoM)는 자신이 남성이 되고 싶거나 남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남성으로서 존재감을 갖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남이 사랑하는 사람의 성별이 자신과 동성인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트랜스젠더가 아닐까 고민하는 것이라면, 같은 성별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본인의 성별을 바꾸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이 누구인가에 앞서, 자신의 성별 정체감에 대해 별도로 깊은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스스로의 몸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지켜봐 주는 것도 좋겠어요. 억지로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신의 몸을 맑게 보고 하찮게 여기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아름답고 자신의 존재가 소중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신체의 평가가 어떠한가를 떠나서 말이지요.

트랜스젠더든, 레즈비언이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금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사회의 편견 탓이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게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지금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큰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남이 진정으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58. 트랜스젠더인데 성확정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성확정수술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성확정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누구나 성확정수술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마음으로 원한다 해도 모두 실제로 성확정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지요. 타고난 신체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이들 역시 상당 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확정수술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해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어느 순간 갑자기 알게 되는 것이 아니듯이, 성확정수술을 할 것인가의 문제도 선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트랜스젠더이며 성확정수술을 통해서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의 경우라면, 성전환수술도 여러 가지 수술과 의료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또, 지금 성확정수술을 받길 원하는지, 아니면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르러 수술을 받길 원하는지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성확정수술이 나에게 가져다 줄 인생의 변화는 무엇인지, 그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찬찬히 생각해 볼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세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확정수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해나가며, 지지를 받거나 도움을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확정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확정수술을 이미 했거나, 하기를 원하고 있거나, 준비단계에 있는 다른 트랜스젠더들과 자기 고민을 나누어 볼 기회를 많이 가져볼수록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경험을 전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지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도 신경을 쓰시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호르몬제 투여, 피부이식, 성기성형술, 유방 및 외부성기 절제술, 기타 성형수술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호르몬 변화와 수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 삶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과 체력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변화가 크고, 그에 따라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성확정수술을 고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비용입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는 과정, 수술 과정, 그리고 수술 후 관리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의료보험 처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깐요. 개인의 삶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부 역시 성확정수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참고: 트랜스젠더 김비님 홈페이지 <http://www.kimbee.net>

59. 저는 트랜스젠더이며 호적정정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의 법제도 상 트랜스젠더 호적정정이 성문화되어 있는 바 없었지만, 그간 호적정정이 된 판례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6년 6월, 최초로 대법원에서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호적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고 개명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지금까지 하급 심에서 판사에 따라 어떤 경우는 허가하고 어떤 경우는 기각하는 등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성확정수술을 거쳐 호적정정을 원하는 트랜스젠더에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은 트랜스젠더가 성확정수술을 거쳐 성기 성형까지 한 경우에만 호적 정정을 허가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모임을 비롯해 인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수술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혼인 관계 여부로 성별 변경을 제한한 것도 큰 문제지요.

현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2년 한나라당 김홍신 전 의원이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이번 법안은 성별 정정 요건에 있어서 외부성기 성형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호적 정정을 위해 보통 어떠한 절차를 가져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호적 정정을 하려면 총족돼야 할 요건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며, 절차도 결코 간단치 않은데요. 대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호적정정에 대해 문의하는 내담자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 트랜스젠더 김비씨가 운영하고 있는 김비넷(www.kimbee.net)의 한 게시물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성별정정 허가가 여러 건 이루어졌을 당시, 김비씨가 부산 지방법원 고종주 판사에게 문의해서 받은 문건인데, 이를 참고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2002년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보세요.

<호적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

1.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 서류에는 호적등본(분가시에는 제적등본 추가), 주민등록등본, 초중고교의 생활기록부, 병적확인서, 의사작성의 진단서와 성전환수술 확인서, 성호르몬 검사서, 염색체 검사서, 성 역할등에 관한 소명자료, 성전환수술 및 성별정정에 따른 본인의 진술서, 가족들의 의견서 등이 있습니다.

2. 절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서류를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법원에 직접 신청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고 합니다.

3. 비용

인지대 1000원, 송달료 7500원입니다.

4. 가까운 법원(지원 포함)의 호적담당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 * 참고자료: 성전환수술 이후 성별정정 신청 시 제출서류
1.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2. 주민등록표 등본
 3. 초,중,고교의 생활기록부 등본
 4. 병적확인서(MTF의 경우)
 5. 의사 작성의 진단서 등
 - ① 성염색체 및 성호르몬 검사서(내과 또는 내분비계 의료인 작성)
 - ② 최소한 2년 이상 심각한 성정체성장애로 고통받은 성전환증 환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2인 이상의 정신과 의사 작성)
 - ③ 성전환수술 확인서(시술을 한 성형외과 또는 비뇨기과 의사 작성의 소견서)
 - ④ 상당기간 정신요법 치료 또는 호르몬 요법의 치료를 받았다는 확인서 (정신과, 내과,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 의사 등 작성)
 - ⑤ 생식능력이 없고, 장래 성인식의 재전환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수술한 의사 등 작성)
 6. 성 역할 등에 관한 소명자료
 - ①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
 - ② 성전환증으로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7. 성전환수술 및 성별정정에 관한 본인 진술서(다음 사정의 기재와 이에 관한 소명자료 첨부)
 - ① 출생 이후 성전환수술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의 성 의식의 변천과정
 - ② 가족관계와 성장기의 사정
 - ③ 학업 및 취업 과정과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
 - ④ 성전환수술을 받게 된 동기
 - ⑤ 앞으로 지향하는 성 역할 및 삶의 목표
 8. 성별정정에 관한 부모 형제 등 가족들의 의견서
 9. 개명을 원할 경우 종전 이름이 부적합하고 새 이름이 필요한 사정과

이유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지요? 그러나 2006년 현재는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준비과정이나 챙겨야 할 문서들이 간소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밝힌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미혼에 무자녀일 것, “성전환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 받아온 사람으로서 반대 성별에 귀속감을 느껴왔을 것,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 또는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신체 외부 모습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이전의 성별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가 없을 것,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경우 병역의무를 다했거나 면제 받았을 것,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등입니다.

성별 변경과 호적 정정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확고하게 하며, 원하는 성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요. 내가 왜 성별 변경을 원하는지, 스스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호적 정정 이후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 부딪치게 될 어려움들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충분히 심사숙고하기 바래요.

또한 그러한 고민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과 많은 정보를 교류하기 바랍니다. 성별 변경과 호적 정정에 관해서는 상담소보다 트랜스젠더 당사자 모임이 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현재 성문화된 법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및 호적 정정의 권리를 인정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공동연대의 연대단체 중 하나인 성전환자인권연대(준) ‘지렁이’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모임입니다.

다.

현재 ‘지렁이’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kdlpsmc>) 안에서 논의를 함께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정보를 원하는 분들은 문을 두드려 보시길 권합니다. 트랜스젠더 김비씨의 홈페이지(<http://www.kimbee.net>)에 방문하여 메일이나 게시물을 통해 문의를 하셔도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호적정정을 비롯해, 앞으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조치들이 하나씩 마련되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생성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차별하는 분위기와 왜곡된 인식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는 일이겠죠.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소개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를 전신으로 합니다. 상담소는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개개인 레즈비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레즈비언을 향한 모든 차별과 억압의 종식을 위한 활동을 고민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는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업, 레즈비언 대상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사건 지원, 자긍심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 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레즈비언 권리 운동, 레즈비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운동,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실천적 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상담소는 평일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이메일상담, 면접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후원계좌

국민 498101-01-114263 (예금주: 이진화)
신한 110-173-859050 (예금주: 이진화)
우리 1002-329-844347 (예금주: 이진화)
농협 079-12-806362 (예금주: 이진화)
외환 630-004684-742 (예금주: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사무 (02) 703-3542 / lsangdam@lsangdam.org
상담 (02) 718-3542 / lsangdam@hanmail.net

<http://lsangdam.org>



한국레즈비언상담소와 함께 풀어보는 59가지 궁금증

자주 묻는 질문 FAQ

발행일 2007년 2월 23일(초판 1쇄)
2009년 06월 12일 (초판 2쇄)

지은이 나루 원영 유리 지현 케이

편 집 혜원

디자인 에림

표 지 에림

펴낸곳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팀

<http://sangdam.org>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전 화 사무 (02) 703-3542 / 상담 (02) 718-3542